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3월 1일(주일) 제1284호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지혜롭고 합당하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와 일부 교회에서의 단체 감염의 사례를 통해 다중시설로 분류되는 교회의 예배와 활동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몇 주간은 더 큰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결정적 기간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교회는 구성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온누리교회는 2월 26일(수)-3월 14일(토)까지 교회 예배당에서의 공예배와 주중모임을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월 1일(주일)과 3월 8일(주일)의 주일예배는 CGNTV와 온누리교회 YouTube 채널을 통해 영상예배로 드리게 되고, 새벽기도회(1부 5:20, 2부 6:30)는 매일 YouTube 생방송으로 제공됩니다(그 밖의 다양한 예배 안내는 아래 상세한 지침을 참고).

한국교회사에서 주일성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기준이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감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성수를 위해 월남하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기쁘게 감당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적인 퇴보나 세속적인 타협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평생 처음으로 공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음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다는 소

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가 되어 영상으로도 동시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주일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일시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중단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이 보다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며, 또한 개인과 가정의 경건생활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GNTV에서 매일 제공하는 <생명의 삶>과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 매일 제공하는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등의 동영상으로 함

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셔서 단체대화방이나 영상대화 등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경건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순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장례 등 긴급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는 언제든지 수행할 것이며, 전화심방 등을 통해 목양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비난과 정죄의 언어를 삼가고 중보와 격려와 기도로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드림

3월 1일 나라를 위한 기도문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1년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자유를 향한 기도와 외침을 들으시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신 공의로 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죄악으로 비롯된 역사의 위기마다 앞장서 회개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 람들을 통하여 31운동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101년 후 삼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타락의 도성 평양이 50여개 교회 종소리가 주일 아침마다 거대한 관현악 연주처럼 울려 퍼지는 '동방의 예루살렘' 거리로 변화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이 타락한 대한민국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 우리는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주일성수를 하지 못하는 침통함 속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구 드립니다. 삼일운동으로 인하여 투옥되고 옥중

에서도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단정한 자세로 통성기도를 드렸던 이승훈 선생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기도를 따라 기도드립니다.

“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항상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더욱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셔서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하여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사상과 탐욕으로 수많은 영혼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소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게 주소서. 고통 받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주소서.

이 위기의 기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도와주소서. 자기 의로 가득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이념과 고집에 사로잡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게 지켜주소서. 온 국민이 비난과 정죄, 미

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과 경건, 배려와 하나 됨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게 주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가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어 회개하여 변화되게 주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당에서 드리지는 예배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정안내

요한복음 17:6~19(3월 5일 본문)

본문 주제: 기도예지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바로 우리 모두를위한기도입니다

영상제목: 기도하고 기도하며

- 쥘렌 프랭클린 목사

내용: 우리는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

지만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였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 오십니다.

적용질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세상을 피해 숨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은 없나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내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기철 목사가 남긴 유산, ‘일사각오(一死覺悟)’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3.1절이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악랄한 일제에 맞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다. 주기철 목사는 오직 믿음 하나로 일제와 맞서 싸운 신앙의 선배다. 그가 47세 젊은 나이에 옥에서 죽어가며 유일하게 남겼던 유산은 ‘일사각오(一死覺悟)’ 신앙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앙을 지키려 했던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제강점기 당시 공포를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눈앞에서 총과 칼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신앙을 포기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물음이 생긴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 그 중심에 주기철 목사가 있었다.

1936년 주기철 목사가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했을 당시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일본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탄압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와 뜻을 같이 한 목사들과 성도들은 일본의 총과 칼에 굴하지 않았다. 믿음 하나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당시 주기철 목사가 했던 설교에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애쓰던 그의 일사각오

(一死覺悟) 신앙이 묻어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일사각오(一死覺悟)’의 뜻을 풀이하면 ‘한 번 죽을 것을 결심한다’는 의미다.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 신앙은 두 번 죽지 않으니 이까짓 감옥에서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은 능히 이기겠다는 뜻이었다. 한 번 죽는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기철 목사 앞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보다 두려운 일은 없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一死覺悟)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주기철 목사는 잔인한 고문과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신앙을 택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했다.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일과 유익, 그리고 신앙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一死覺悟)’ 신앙을 떠올려보자. 육신의 배부름과 안락함, 유익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성경필사와 성경암송

크리스천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미 많은 가정과 차세대 예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탁월한 방법으로 ‘성경필사’와 ‘성경암송’을 추천하고 있다. 성경필사와 성경암송만큼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필사와 성경암송을 가정예배에 접목하면 더욱 좋다.

성경필사는 가족구성원마다 성경본문을 정

해서 실시하면 좋다. 기왕이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필사하고, 교제하는 게 유익하지만 모두 함께 모이기가 어렵다면 각자 성경필사를 해도 좋다. 온 가족이 성경 전권을 필사하면 아주 의미 있는 신앙자산이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올해 시순절을 아주 뜻 깊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순절 성경필사’가 바로 그것이다. 각 가정에서 차세대사역본부가 제공하는 저학년, 고학년

용 성경필사 노트를 활용하면 된다. 올해 시순절을 보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성경필사를 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성경암송은 성경필사보다 대중적인 신앙전수 방법이다. 가정예배를 성경암송예배로 드리는 가정들도 많다. 많은 분량의 성경을 암송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조금씩 암송한 구절을 쌓아가는 게 더욱 중요하다. 자녀가 암송한 성경구절을 잊어버

리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성경암송 주간계획표, 체크표, 일지 등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이다.

성경암송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말씀심는 엄마>의 저자 백은실 사모는 “한글을 떼지 않아도 암송을 할 수 있다”면서 “태중에서부터 부모가 먼저 암송을 생활화 하라”고 권면했다. 성경필사와 성경암송으로 가정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드리기를 바란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 사무엘하 6장 9절~12절

찬양 : 그의 생각

메시지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30년 만에 법궤를 찾아 성전으로 옮겨 옵니다.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웃사가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를 두려워하며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나눔을 가지려 합니다.

첫째,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고리에 막대를 끼워 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운반이

편리한 수레를 이용하여 소들이 법궤를 끌게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이방의 우상을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웃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사람의 편의대로 수레를 이용했고 결국 운반도 중 법궤가 떨어지게 되자 손을 뻗어 만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방법과 생각을 앞세워 후회했던 경험에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 안에 죽어야 할 고집이나 편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윗은 두려움에 법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오벧에돔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법궤가 오벧에돔의 집에 석달 간 머물게 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오벧에돔과 온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진정한 축복입니다. 역대상 16장 37-38절의 말씀을 보면 오벧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오벧에돔은 가드 사람으로 소개되었는데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문지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드에서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있었지만 오벧에돔의 가정이 법궤를 따라 이사

한 것입니다. 오벧에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가까이 모시기 위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벧에돔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오벧에돔의 가정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오벧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웃과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문영재 목사

*오늘(3월 1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의 구원을 기뻐하고 춤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춤추는 하나님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죄인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한 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춤추시는 분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라 비판하며 막아보려고 했지만 성령 안에서 춤추는 이들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 제도, 질병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춤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춤추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 ‘법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탭버린과 하프를 그분께 찬양하라”(시 149:2-3).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춤을 추었던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이 온전한 기쁨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되찾는 일이요, 둘째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법궤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

리입니다. 셋째,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돌판과 항아리와 지팡이는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떻게 여기고, 법궤를 어디에 보관하고, 법궤와 어떻게 동행했는지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주전 1446년경 시나산에서 이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랑할 때 동행했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발을 담갔으며, 가나안 정복시대 땅을 분배한 이후 300년 동안 법궤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흐름의 역사는 곧 법궤 흐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 왕 때 깨졌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법궤를 소홀히 여기고, 멸시당하고, 법궤를 통한 인도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이유는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이지, 법궤를 마법 상자처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마법의 상자처럼 사용했고 결국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진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는데, 그 다곤 신상이 부서집니다. 독종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두려워해 다시 반납합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마법 상자처럼 사용하려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법궤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심으로 법궤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하는 것을 수레에 끌어서 편리하게 움직이려다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법궤의 이동을 국가적인 행사로 확대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의 대표를 뽑아 동행하게 했습니다. 나라의 온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와 민족에서도 이러한 행사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신 목적을 알았고, 어떻게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때 다윗은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온전한 기쁨

사무엘하 6:11~22

“다윗처럼 온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춤이 있다면 참된 기쁨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기쁨의 춤

“다윗은 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와 함께 모셔 왔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경충경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14~16절).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의 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춤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춤이었기에 온전한 기쁨의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의 내용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기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기쁨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슬픔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온전한 기쁨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슬픔을 통과하여 왕이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시 30:11).

다윗은 우리의 기쁨의 춤이 시작되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슬픔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춤으로 초대하시는 초청장이 바로 슬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출발은 슬픔을 통해서입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슬픔을 통해 우리의 관념이 무너지고,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깊은 슬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췄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남편 다윗은 3만 명의 대표들 앞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기뻐하고 가장 앞장서서 자신의 베옷이 벗겨지고 속옷만 입은 채로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는 남편을 창문을 내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미갈의 영광 태도가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구경자로 나갈 때 빠지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자로

참여할 때 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창문으로 구경하는 미갈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기쁨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기뻐 뿔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체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요’”(21~22절).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높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언제나 비교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겸손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기뻐할 때 다윗은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춤은 음악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취되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자신을 낮춰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기쁨의 춤을 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는 다윗이 경험한 온전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의 기쁨입니다.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기쁨의 춤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온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